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출애굽기 12:21-28, 고린도전서 15:50-58

최정웅 목사님

요약

서론 : 인생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의 문제

- (1) 불신자 상태, 우상 문화, 근본 문제 때문
- (2)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승리

1.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부활하셨다.

- (1)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고 부활하셨다.
- (2) 주님의 부활은 제사장, 선지자, 왕의 사역의 완성이었다.

2. 부활의 결과가 무엇인가?

- (1) 주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창세기 3장·6장·11장의 문제를 이기셨다.
- (2) 사도행전 13장·16장·19장의 문화를 이기셨다.
- (3)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기시고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결론 : 부활의 승리를 후대에게 각인시키고, 뿌리와 체질이 되게 하자.

“주님, 감사합니다. 2015년도 부활절에, 주님이 구원해 주신 참사랑 가족들이 허락하신 전에, 허락하신 시간에 모여서 경배하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을 주시옵소서. 좋은 주의 말씀을 성령의 충만 가운데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해피 이스터(Happy Easter)!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인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오늘은 부활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전히 승리하신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날이다. 완전한 승리의 날이다. 오늘 하루 동안,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충만하게 누리는 축복 있으시기를 바란다.

인생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다.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죽고 죽이고 하는 것이 인생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라는 문제가 와 있다. 죽지 못해 산다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나. 그러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다가 자살하기도 하고, 이번에 독일 비행기가 추락한 것처럼, 자기 영적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일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가 케냐의 김동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IS와 알 사바브 살인자들이 케냐에 들어와서, 무차별로 147명을 쏘아 죽였다. 기독교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과학은 발전하는데 영적 문제는 더 심해지고 있고, 의술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영적 문제를 모르면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범죄들이 계속 일어난다. 이것이 불신자 상태의 모습이다. 이런 죽음의 공포가 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긴 것이 모든 종교 문화다. 무속, 점술, 우상이 전 세계 문화에 이것 때문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런 노력을 해도, 결코 죽음을 이길 수 없다. 이유가 뭐가? 근본적인 죽음의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개인의 멸망과 죽음, 창세기 6장에 나온 가정과 가문의 저주, 창세기 11장에 나온 사회와 시대의 재앙을 못 막는 것이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열두 가지 문제를 완전히 꺾으신 사건임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고, 정말 믿으시기를 축원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두고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다.

1.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증거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1) 한 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고, 구약의 예언대로 죽으셨고, 구약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다. 구약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다. 구약 39권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사시다가 이렇게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한 것이 구약 39권이다. 이 예언이 모두 이루어지고, 마침내 부활까지 완성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그 모든 예언을 충족시킨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완전히 증명된 것이다.

(2)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과 부활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 외에도 분명한 이유가 또 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왕의 일, 선지자의 일, 제사장의 일을 모두 완성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기름부음 받은 자 아닌가? 구약에 기름부음 받은 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을 말한다. 이들을 세울 때, 잘 다듬은 뿔에다 허브 향기가 나는 향수를 담아서, 그 머리에 부어서 임직을 했다. 그 방법이 구약성경에 다 나온다. 이 세 가지 직분의 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한꺼번에 완성되었다는 말이다. “엘리아야, 너는 아벨브홀라에 가서 엘리사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 너를 이어 선지자로 삼아라.” “모세야, 너는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삼아라.” “사무엘야, 너는 베들레헬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 내가 원하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충만을 받은 것이다. ‘이 세 직분을 행할 자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 떠난 너희를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해 주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고, 사단을 제거해서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는 참 왕을 보내 주겠다’ 하신, 바로 그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다.

① 먼저 예수님은 죄로 인해 온 죽음의 결과를 무너뜨리신 것이다. 롬 8:2에는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을 박살내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참 제사장으로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음에 감사하자.

②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죽음과 그 이후에 오는 지옥의 심판을 이기신 것을 말한다. 예베소서 2:6의 말씀대로,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지옥에 있지 않고 보좌에 앉은 신분이 되었다. 요한복음 5:24의 말씀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다. 빌3:20의 말씀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주소가 옮겨져 버렸다. 이 일이 참 선지자의 일이다.

③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참 왕으로서의 부활이었다. 히브리서 2:14에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셨다고 했고, 요한일서 3:8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은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신 것이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그리스도인 증거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마음 속에 임마누엘하심을 누리고 믿으시기 바란다. 그래

서 늘 새 힘을 주께로부터 받고 최고로 승리하는 날들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당회원들 카톡방에 누가 자료를 올리셨는데, 삼류 권투선수의 이야기였다. 이 사람은 시합에도 못 뛰고 겨우 선수들의 연습 상대만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만 얼음에서 놀다가 얼음이 갈라지면서 물에 빠져 버렸다. 아들이 얼음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본 이 아버지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피투성이가 되도록 주먹으로 얼음을 쳤다. 주먹이 깨질 때까지 쳐서 결국 얼음을 깨고 아들을 살려낸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지 않나. 링 위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 아버지의 주먹이 두꺼운 얼음을 깨고 구원의 손이 되었다. 영상을 만든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손을 보여주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여, 그 손으로 우리를 구해주신 것이다. 오늘 성찬식을 할 때 주님의 큰 사랑이 또다시 우리 가운데 파동쳐 오게 되기를 축원한다.

2. 부활의 결과가 무엇인가?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목상할 말씀은 부활의 결과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승리하셨는가?

(1) 첫 번째 승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가지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창세기 3장의 일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의 자녀가 된 인간에게 다가온 문제가 무엇인가? 창 2:17, '정녕 죽으리라' 한 문제였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창세기 3장 때문에 온 문제가 죽음인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창세기 3장의 배경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신 것이다.

(2)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온 가정, 가문을 장악한 멸망과 저주의 상태를 무너뜨린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떠나 육신의 정욕에 빠져 버린 결과 온 세상에는 네피림의 문제가 와 버렸다.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은 상처와 갈등 속에 살아간다. 계속 문제가 반복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죽음과 관계된 모든 멸망을 이기셨다.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저주의 모든 상태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는 말이다. 그래서 네피림 시대를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그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을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한다.

(3)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지금도 세상은 바벨탑을 쌓고 있다. 성공 아닌 것을 성공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바벨탑을 계속 쌓아가고 있다. 이 사회에 다가온 재앙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신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충만을 받으면 바벨탑 문화를 이길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 이 약속을 붙잡는 순간, 현장에 와 있는 창세기 11장의 모든 재앙 배경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이 비밀을 믿음으로써 여기에서 해방되기를 축원한다.

(4) 예수님의 네 번째 승리는 무엇인가? 주님은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이기신 결과, 인간에게 다가온 우상 문화와, 그 배경에 있는 흑암 세력을 다 꺾어 버리셨다. 모든 문제를 이기시고 우상의 문화를 꺾으셨다는 그 말이다. 오늘 신약 본문 55절, 56절을 보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미 그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졌다는 것이다.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와 사망의 법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종교와 문화의 법을

깨뜨려 버린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말이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화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순간 무너져 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5) 마지막 다섯 번째 승리는 무엇인가? 57절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참된 승리와 영원한 해방을 주시는 승리인 것이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앞으로의 평생 동안 두려워 할 비밀이다.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면서 사시기 바란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신자 상태는 무너질지이다. 모든 실패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이다." 선포하시기 바란다. 가는 곳마다 삶의 승리가 임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세계복음화할 부자들이 나오시기 바란다. 민족복음화를 내 삶으로, 산업으로 증명할 분들이 나오시기를 축원한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약 본문에 중요한 답이 나온다.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본문인데,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하지만, 어리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은 살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이다. 24절에, 이 사실을 후대에게 각인시키라고 말씀한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도록 해라." 그래서 유월절 예식을 가지고 언약을 자녀에게 반드시 전달하고 각인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결론이다. 부활의 승리를 후대에게 각인시키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란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단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전달하고 각인시키라는 말이다. 먼저 자신이 이것을 누려야 가능하다. 그때, 모든 문제를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후대에게 전달될 수 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응답 받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그 말씀이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한 번만 자녀들이 보면 그것이 각인되어 버린다. "나의 사랑하는 책,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입으로 이 찬양만 하지 말고, 태영아부 엄마들이 실제로 이것을 실현하시기 바란다. 성경을 가르치고 찬송해서, 아이들의 마음 속에 각인되게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전달을 넘어서서 각인되는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을 가지고 무능, 무지, 무기력, 불신앙, 실패, 가난, 죽음의 각인을 무너뜨리고, 부활과 생명을 각인시키시기를 바란다. 생명의 복음이 뿌리내리는 한 주간, 능력의 복음이 체질이 되고 임마누엘이 체질이 되어, 승리하는 한 주간, 남은 생애 사시기를 축원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사는 것이 있음을 알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행복이 있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지 못하는 자의 가슴에서 불신앙을 무너뜨려 주시고 참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의심하던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와서 내 손의 못자국을 보고, 손을 넣어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 보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